

#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 및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Works by a Composer LEE Seong-Cheon and the Application Plan as Korean Cultural Contents

강선하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Sun-Ha Gang(sunha1203@snu.ac.kr)

### 요약

이 글은 한국의 창작국악작품이 어떻게 21세기한국문화의 고유성과 현재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이성천은 한국의 전통과 한국적인 정체성을 학문적으로 창작적으로 깊이 고민하며 작품세계를 펼쳤던 대표적 작곡가이다. 이성천의 작품세계 중 전통음악적 작품, 자연소재의 작품, 민족주의적 소재의 작품, 문학소재의 작품들은 한국 전통문화와 한국적 정체성과 관련해 문화콘텐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작품들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음악문화는 전통음악뿐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이 창작된 현대적 창작국악작품도 한국문화콘텐츠로서 확고한 역량을 다 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 중심어 : | 문화콘텐츠 | 한국적 정체성 | 창작국악 | 이성천 |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Korean newly-composed pieces (Changjak Gukak) can be used as good cultural contents to publicize a characteristic and nowness of Korean cultur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ocusing on the works of composer Seong-Cheon Lee. LEE Seong-Cheon is a typical Changjak Gukak composer who academically and creatively speculated Korean tradition and identity. In his works, traditional ones, natural-thematic ones, nationalistic ones, and Korean literary-thematic ones are the works which have a possibility to use cultural contents with respect to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identity. This study dealt with the fact that newly-composed pieces based on traditional music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expanding Korean cultural contents between tradition and modern.

■ keyword : | Cultural Contents | Korean Identity | Changjak Gukak | Seong-Cheon Lee |

## I. 서론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s)란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국제적으로 서서히 통용되고 있는 용어인

데[1], 문화의 원형이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어 매체(on-off line)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과정이라고 정의된다[2]. 세계 각국은 자국만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때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3]. 한국에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통음악문화가 있고,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국악작품들은 음악문화콘텐츠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작곡가 이성천(1936~2003)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의 창작국악작품을 문화콘텐츠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작곡가 이성천은 창작국악의 대표적 작곡가로서 누구보다 한국의 전통과 한국적인 정체성을 고민하며 진지한 작품세계를 펼쳐왔던 작곡가이다. 따라서 이성천의 생애와 음악철학, 작품세계를 먼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의 창작국악작품이 21세기의 문화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모색해볼 것이다.

## II. 이성천의 생애와 음악철학

### 1. 이성천의 생애

음악콘텐츠에 대한 연구에 있어 인간은 사건을 구성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작품을 둘러싼 인물정보에 대한 구축은 필수적이다[4]. 음악자체보다 인물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그 작품이 당시 사회에 가지고 있던 의미와 역할이 인물들의 활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5]. 이성천의 생애는 작품활동 및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제1기에서 제4기로 구분할 수 있다[6].

제1기는 1961~1975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61년 이성천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입학하며 작곡가로서 초기 작품세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1962년 국립국악원 주최 8·15 광복기념 신국악작품 공모에서 가작에 당선되었고, 1963년 동 대회 1등상 수상, 1965년 공보부 주최 신인음악상 작곡부에 입상, 1968년 동아일보사 주최 전국 음악 콩쿠르 국악작곡부에서 1위를 수상, 1969년 서울신문사주최 한국문화대상 국악부문 창작상을 수상하는 등 초기 활동을 펼쳤다.

제2기는 1976~1986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1976년 이성천은 서양음악을 미국에서 2년간 유학한 후, 귀국

해 여러 대학에서 국악을 강의했고, 1982년에 서울대학교 국악과 조교수에 임용되었다. 1983년에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예술철학과에 입학하여 동양문화와 철학을 연구했다.

제3기는 1987~1993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이성천은 한국국악교육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국악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더욱 활발한 작품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특히 여러 성악곡을 발표하여 한국문학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작곡했다.

제4기는 1994~2003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1995년 이성천은 국립국악원의 원장에 임명되어, 국악공연활동과 국악이론을 위한 학문적 성과를 키우고자 노력했다. 2001년 보관문화훈장과 KBS 문화대상 작곡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왕성한 활동 중에 이성천은 2003년 67세의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 질병으로 생을 마감한다. 다음 표는 이성천의 생애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이성천 생애의 주요 흐름

구분	시기	주요 특징
제1기	1961~1975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으로 입학, 작곡가로 등단한 초기 활동시기
제2기	1976~1986	국악교육, 국악작곡, 동양철학 연구 등 활발히 전개
제3기	1987~1993	한국국악교육협회 회장직 등 국악을 위한 중추적인 활동
제4기	1994~2003	국립국악원 원장 등 역임, 국악의 공연과 이론 발전에 헌신

### 2. 이성천의 음악철학

20세기 초의 급격한 외래문화의 수용과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을 지키고 한국인만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문화·예술계 전반에서도 본격적으로 한국 고유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1960년대 초반에 이성천은 작곡가로서 등단했고, 그의 창작곡들은 우리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본질적 탐구 정신과 실험 정신이 가미된 것이었다. 이성천의 창작 국악에 대한 작곡태도, 국악 창작방법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국악의 정신이다.

한국 전통음악의 보존·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던 이성천은 한국 전통음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이에 한국 전통음악의 본질을 국악의 전통적 기법이나 형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악의 정신으로 접근해야 함을 인식하면서, 한국 전통음악의 탄생과 성격, 그리고 본질에 대하여 동양철학적 관점에서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성천이 동양철학을 전공한 것도 이와 같은 사유였다. 이러한 탐색은 궁극적으로 ‘국악의 마음은 무엇이며, 또 국악을 만들고 즐긴 사람의 정신은 무엇일까 하는, 원초적이며 사유적 물음[7]’에 답하기 위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필수불가결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악다운 것을 국악답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함을 인식하면서, 이성천은 한국 전통음악의 본질을 찾고 그 성격을 밝히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성천은 국악학의 연구영역이 역사에 국한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음악의 정신을 다루는 음악철학을 찾고자 했다.

이성천은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음악철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성천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음악현상을 설명하는 어휘, 한국 전통음악의 정신과 양식을 규정하는 어휘로 채택한다. 이성천은 화(和)와 동(同)은 상대적 개념으로, 하나이면서 다른 요인으로 보았으나 논리의 명확성을 위하여 화와 동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화(和)는 화목하다, 온화하다, 순하다, 합치다, 서로 응하다, 화답하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토대로 하면 화는 여러 개별적 요소나 존재들이 전제되어 이들이 서로 하나로 합함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하나 됨’ 또는 ‘어우러짐’을 뜻하므로, 화는 개별성을 전제로 한 전체성을 의미한다. 부동(不同)은 ‘같지 않다’ 또는 ‘동일하지 않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성천은 이를 세 가지 음악 현상으로 설명한다. 첫째, 독창곡 또는 독주곡 내에서 선율이 동일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동일 선율의 반복이 없다. 둘째, 병주, 세악 합주곡에 있어서 각 악기의 선율이 동일하지 않다. 셋째,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모방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통한다[7].

동(同)은 ‘같다’, ‘한가지’, ‘함께’, ‘합치다’, ‘무리’, ‘모이다’ 등의 의미로, 부동(不同)이라 함은 ‘같지 않다’, ‘한가지가 아니다’, ‘함께하지 않다’, ‘모이지 않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 사실 이로 보면 ‘하나 되다’는 화(和)와는 반대되는 의미로 보일 수 있으나, 이성천의 분석대로 화를 전체성으로 보고, 부동(不同)을 개별적 요소 즉 음악적 요소로 본다면 결국 부동이 모여 화를 이룸을 의미하므로, ‘개별성을 전제로 한 전체성’이라는 의미가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부동의 의미를 ‘모방하지 않음’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7].

모방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을 본뜨다, 본받다’의 의미를 둔다. 자연적 순(鷄)의 소리를 모방하여 악기로 낸 소리는 순의 소리와 동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개나 새의 모습, 강 흐르는 소리를 모방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은 수는 없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모든 사물은 모방으로부터 새로운 창조로 나아간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ēs, BC. 384~BC.322)는 예술의 기원을 모방<sup>1</sup>이라 말한다. 이성천의 해석과 그의 창작방법을 바탕으로 이를 풀어내면, 한국인은 자연과 어우러지고 자연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자연과 가까우며, 자연을 수용·모방한 것이 예술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방은 ‘동일하지 않음’ 즉 부동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성천의 해석과 전체적 틀에서 보면 그 맥락은 같다. 한국인의 삶은 자연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자연을 수용하는 예술을 펼친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천은 한국 전통음악의 정신을 화이부동이라 명명하며, 이에 대한 양식적 예증을 하고자 한다. 즉 한국 전통음악의 양식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다른 말로는 한국 전통음악의 짜임새 등의 특징을 밝히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에 이성천은 한국 전통음악의 양식을 단음적 단성음악(Monophony)도 다성음악(Polyphony)도, 헤테로포니(Heterophony)도 아닌 각 선율이 주종관계가 없으면서 각기 독립적 선율이 합쳐져 조화롭게 되는 것이라 밝힌다. 개별적인 것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므로, 한

1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 제IV장 제1~22행에서 모방의 연원과 기능을 말하며, 예술은 1)인간의 모방성향과 2)하모니와 리듬에 대한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김한식 역, 『시학』, (서울: 팽귄클래식코리아, 2010), 제IV장 참조.

국 전통음악의 양식 또한 화이부동이라는 것이다.

이성천의 주장과 실제 한국 전통음악의 양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충하여 정리하면, 한국 전통음악의 양식으로서 부동은 화를 기본전제로 하여 둘로 그 특징을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 전통악기는 서로 다른 소리와 악기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즉 동일하지 않은 악기가 각기 다른 독자적 선율을 노래하더라도, 이들의 선율은 하나로 화하여 전체를 만든다. 독립적 선율의 조화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위한 개별적 요소들의 조화와 결합으로 분석함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은 자연을 수용하여 본편 예술적 표현이며, 선율은 부동하나 기틀이 된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자연의 모방으로부터 예술은 출발하며, 한국인은 특히 자연과 어우러져 자연을 수용하고 자연을 닮은 삶을 살아갔다는 점에서 다르나 같다. 즉 부동에 대한 해석은 부동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화를 이룸에 대한 전제조건을 풀이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성천은 이처럼 한국 전통음악의 정신과 양식을 “화이부동”이라 명명하고, 이 화이부동의 음악에 대한 외국어 명칭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명칭이 필요한 바, 이에 기존 바람직하거나 유사한 명칭이 없으므로, mehrstimming Musik(다중성[多重聲] 음악, 다음적[多音的] 음악)의 어휘 채택을 건의하기에 이른다. 이 개념은 라흐만(Robert Lachmann, 1892~1939)과 작스(Curt Sachs, 1881~1959)가 제시한 동양음악의 선율진행이 다음성(多音性, mehrstimmingkeit)의 특성이 있다고 한 데에서 착안한 것이다. mehr(많음[多])와 -stimmig(조화)의 의미가 ‘화이부동’과 그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여, mehrstimming Musik을 화이부동의 외국어 명칭으로 명명하고 있다. 라흐만이 서양음악과 동양음악의 차이를 설명하며, 동양음악의 특징으로 “협화음이나 불협화음도 의도되지 않고 쌍방의 성부는 서로 관계없이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된다[4].”고 다음성(多音性)을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용어 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이성천이 제시한 한국음악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같지 않은 것들의 합침으로 조화를 이룬다.

둘째, 같지 않은 것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지만 전체는 조화된다.

셋째, 각 선율은 주종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를 유지하고, 수직적 형성이라기보다 수평적 형성이다.

넷째, 선율들은 전체적 조화를 위해 움직인다.

이성천이 한국 전통음악의 정신과 양식을 화이부동으로 명명하고 외국어 명칭을 mehrstimming Musik으로 지정하는 데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충실히 갖추어진 후 이루어진 일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곧 한국 전통음악의 본질을 밝히고 나아가 세계화에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성천은 이와 같이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정신과 양식을 찾고자 했으며, 이는 한국인의 일상적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한국 전통음악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인식론적 접근이 밑바탕된 것이다.

### III. 이성천의 작품 세계

#### 1. 이성천의 작품 분류

이성천은 한국인의 삶의 모습, 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예술가로서 자신의 인격과 성정을 수양해 나가고자 했다. 그렇기에 이성천의 작품에는 한국철학뿐 아니라 한국인의 전통적 삶이 녹아있다.

이성천의 작품은 바로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의 결합, 미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의 결합을 보여주며 삶의 인식론적 차원을 지닌다. 음악 작품 내에서 소재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자연의 또는 우주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와 하나로 화(和)하고자 하는 내적 깨달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천의 작품세계는 무제음악, 전통음악적 작품, 자연 소재 작품, 일상적 삶 소재 작품, 종교·철학 소재 작품, 민족주의적 소재 작품, 문학 소재 작품의 일곱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6]. 이 중에서 특히 한국 전통

문화와 한국적 정체성과 관련해 문화콘텐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작품군은 전통음악적 작품, 자연소재의 작품, 민족주의적 소재의 작품, 문학 소재의 작품이다.

전통음악적 소재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세령산 변주곡(1966)>, <피리와 타악기를 위한 합주곡 “점과 두 개의 곡선”(1967)>, <관을 위한 합주곡 “쟁(淸)과 아악(雅樂)”(1969)>, <가야금 독주곡 “다스름과 변주곡”(1972)>, <국악관현악 입문(1974)>, <국악관현악 “사모곡”(思母曲)(1976)>, <두음을 위한 오현금(五絃琴)(1976)>, <합주곡 “타령에 의한 전주곡”(1986)>, <협주곡 “새야 새야 민요주제에 의한 가야금독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환상곡”(1992)>, <합주곡 “보허사에 의한 대입곡”(1992)>,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주제에 의한 가야금협주곡(1998)>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국악관현악 입문>은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연상시키는 곡으로, 국악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새야새야 민요를 소재로 국악과 국악기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성천은 여러 전통음악을 편곡하여 발표했다. 현재 전승이 단절된 당비파와 향비파를 위해 <편수대엽>, <계면가락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 <만대엽>, <황하청> 등 여러 편곡작품들을 발표한 점은 문화의 전승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자연을 소재로 한 대표적 작품으로는 <중주곡 “피리와 가야금에 의한 소품 숲속의 이야기”(1963)>, <가야금 독주곡 “숲속의 이야기”(1967)>, <가야금 독주곡 “여울”(1979)>, <타악기를 위한 모음곡 “시골풍경”(1981)>, <가야금 독주곡 “바다”(1986)>, <중주곡 12번 “해바라기”(1986)>, <혼성 2중창과 관현악을 위한 “사계”(1988)>, <합주곡 “저 들판 겨울나무로 가고 싶네”(1989)>, <향비파 독주곡 “노을”(1991)>, <중주곡 “새들의 꿈”(1991)>, <가야금 독주곡 “미꾸라지 논두렁에 빠지다”(1993)>, <피리 독주곡 “풀피리”(1994)>, <해금 독주곡 “초원의 집”(1996)>, <해금 독주곡 “강물이 흐르는 풍경”(1998)>, <중주곡 “민들레는 까치를 사랑하였소”(1998)>, <가야금 독주곡 “대지의 노

래”(2000)>, <가야금 독주곡 “큰 산은 깊은 골짜기를 품는다네”(2001)>, <해금 독주곡 “단풍나무 이야기”(2001)> 등이 있다. 이성천은 한국의 정체성이 한국의 자연과 한국인의 자연주의적 삶에 있다고 보아 자연을 소재로 한 소박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이성천의 작곡경향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특징적인 작품 주제군이다.

민족주의적 주제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현충사제악(1977)>, <관현시곡 “나의조국”(1980~85)>, <합주곡 “훈민정음”(1986)>이 있다. <현충사제악>은 제 423회 충무공 탄신다례 기념행사를 위해 작곡된 작품이고, <나의 조국>은 제 1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제 2부 ‘산하’, 제 3부 ‘민족의 송가’로 구성되었고,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을 가사로 하고 있는 남녀 4부합창과 관현악 편성의 대곡이다. 이성천은 몇 편의 민족주의적인 소재의 작품을 남기고는 있으나, 이성천은 민족주의적인 작곡가라기보다는 자연주의 작곡가로 보는 점이 더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문학 소재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가곡 4중주 “사슴”(노천명 시)(1986)>, <가곡 “초혼”(김소월 시)(1989)>, <독창가곡 “저녁”(노천명 시)(1992)>, <독창가곡 “산딸기”(노천명 시)(1992)>, <독창가곡 “귀뚜라미”(노천명 시)(1992)>, <독창가곡 “말 앓고 그저 가려오”(노천명 시)(1992)>, <여성 2중창과 실내악 “곡 축석루”(노천명 시)(2002)> 등이 있다. 문학 소재의 작품은 대부분 노천명과 김소월의 시를 바탕으로 한 성악곡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상으로, 이성천의 작품세계는 한국 전통음악, 한국적인 특성,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의 자연, 자연과 조화하는 한국인의 삶을 소재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작곡악의 태동기부터 21세기 초반까지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왔던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국적인 자연 풍경, 한국문학을 중심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음악콘텐츠로 역할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이성천 작품의 한국적 정체성

이성천은 동양철학을 공부하며 한국의 사상과 문화

에 대해 일반적인 관심 이상의 심도 있는 학문적인 연구를 했던 작곡가이다. 이성천은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국인의 소탈한 삶, 그리고 한국문화를 주제로 하는 작품을 주로 창작했다. 그러므로 이성천의 작품은 한국적인 특성과 정체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기에,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성천의 창작국악작품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국적인 문화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통음악적 소재의 작품은 직접적으로 한국의 전통음악이 현대음악문화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실례가 될 수 있다. 이는 창작국악작품이 박제화된 전통으로서 존재하는 무형자산이 아니라, 한국의 현재 예술가들이 전통을 소재로 하여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작품군이다. 이성천은 여러 전통음악 소재의 작품과 전통음악을 편곡한 작품들을 남겼기에 이성천의 작품은 이러한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은 이성천의 작품세계를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주제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성천은 평소 한국 전통음악의 미와 한국인의 심성은 한국의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의 이러한 가치관은 그가 창작한 음악에 잘 반영되어있다. 한국인의 삶과 친숙한 해바라기, 민들레, 까치, 풀피리, 단풍나무, 까치 등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동식물이 작품의 소재가 되어 국악기를 통해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셋째, 민족주의적 소재의 작품 중에서 한국적 문화콘텐츠로서 가치가 높은 작품은 혼성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훈민정음>이라 볼 수 있다. 이성천의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의 제작원리인 '주역의 이치, 천지인 삼재 음양오행사상[8]'에 근거하여 작곡된 작품이다. <훈민정음>의 악기편성과 배치법은 훈민정음 제작원리에 따르는 동양철학적 사상을 반영한다.<sup>2</sup> 이성천의 합주곡

2 <훈민정음>의 악기편성은 단소·당적, 대금, 피리, 태평소, 편종·편경, 장고, 북, 징, 해금, 양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으로, 음양오행과 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담고있다. 음양의 이치는 혼성합창을 선택한 점이고, 천지인 삼재는 중앙에 배치된 세 타악기인 '장고·북·징'으로 상징된다. 세 타악기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단소·당적, 대금, 피리, 태평소, 편종·편경'의 다섯 종류의 악기가 배치되어있고, 아래쪽으로도 '해금,

<훈민정음>은 한국의 우수한 언어적 문화적 콘텐츠인 한글을 주제로 삼은 창작국악이라는 점에서 한국문화와 언어를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한국문학 소재의 성악작품은 한국어로 가사로 사용하고, 한국의 국악기를 반주악기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적인 고유성을 내보이는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성천은 특별히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출하고 있는 대표적 시인인 김소월과 노천명의 시를 즐겨 가사로 사용했고, <여성 2중창과 실내악 "곡 축석투">와 같이 논개의 삶을 묘사한 노천명의 시를 음악화하여 애국적인 면을 담고 있는 작품을 창작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성천의 전통음악적 소재의 작품과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 한국문학 소재의 성악작품들은 한국적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동시대의 음악이라는 점에서 음악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류 음악문화콘텐츠에 대하여 '획일적인 음악장르와 독창성의 결여, 자생적이고 깊이 있는 한국문화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9]'는 등의 지적이 있는 바, 이성천의 한국적 음악작품들은 한류 음악문화콘텐츠의 질적 다양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 IV. 이성천 작품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한국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적 문화콘텐츠'의 창출이며, 그 출발점은 '우리 예술의 콘텐츠화'에 있다 [10]. 음악문화콘텐츠는 정보의 수집, 추출, 분석, 조직, 의미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5]. 앞에서 연구된 이성천의 일대기 및, 그의 작품들의 주제군에 따른 분류와 분석은 문화콘텐츠로서의 기획 및 사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이성천의 일생과 음악철학, 작품세계, 작품분류, 작품해석 등의 음악적·사회문화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다. 이는 창작국악이라는 큰 콘텐

양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의 다섯 종류의 악기가 배치되어있어, 양쪽으로 오행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츠 하의 개별 작곡가로 포함될 수도 있고, 이성천 작품의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창작국악 1세대 작곡가의 작품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는 작곡가 지망자 및 국내외 기존 작곡가와 음악연구자에게 창작과 연구에 활용될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교육적인 면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학교교육현장, 문화예술교육현장 등 다양한 목적의 다양한 교육 장소에서 활용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특히 다른 분야와의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창의적 능력의 함양과 소통을 중시하기에[11], 한국적인 창조성이 돋보이는 창작국악콘텐츠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한류 음악콘텐츠에 있어 한국적인 정체성이 결여되어있음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바와 같이, 이성천의 작품은 on-off line을 통한 음악 산업의 음원으로 활용되어 한류 음악의 질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따라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에 적합한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음악 장르가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이 함께 그 기반을 조성해야한다[12]. 한류 음악 산업으로서 대중음악에 비해 창작국악작품의 시장성은 약하다 할지라도, 문화라는 것은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는 음악 산업 문화를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음악관련 서비스는 이용자의 음악감상 패턴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13], 이때 한국적인 음악적 감수성을 지닌 이용자에게 이성천의 창작국악작품을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서 추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 음원은 영화나 드라마, 게임, 각종 축제 행사 등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획일화된 창작음악 공연을 넘어 스토리텔링으로 참신하게 기획된 공연문화 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茶)와 전통음악을 결합해 춤, 미술, 퍼퍼먼스를 종합한 무대예술로 승화시킨 다악이 'Korean Tea Music'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정농악회는 웰빙과 선(禪)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문화에 발맞추어 '명상음악회'를 기획하여 해외에서 공연하였다[9]. 이러한 스토리텔

링이 있는 음악회에서는 기존의 전통음악과 나란히 현대의 창작국악작품이 공연되고 있기에 이성천의 작품은 한국적인 공연문화콘텐츠로서 한국음악 전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이 글은 한국의 창작국악작품이 어떻게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현재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작곡가 이성천은 창작국악의 태동기인 1960년대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 2003년 타계하기까지 꾸준한 창작과 작품발표에 힘써왔고, 뿐만 아니라 국악교육과 국악 이론에도 기여한 바가 큰 대표적 작곡가이다. 이성천은 한국의 전통과 한국적인 정체성을 학문적으로 창작적으로 깊이 고민하며 작품세계를 펼쳤다.

이성천의 다양한 작품세계 중에서 전통음악적 작품, 자연소재의 작품, 민족주의적 주제의 작품, 문학소재의 작품들은 한국 전통문화와 한국적 정체성과 관련해 문화콘텐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작품군이다.

전통음악적 소재의 작품은 한국의 전통음악이 단지 박제화된 전통으로서 존재하는 무형자산이 아니라, 한국의 현재 예술가들이 전통을 소재로 하여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이다. 이성천의 작품세계를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주제인 자연 소재의 작품은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이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으므로, 한국의 자연과 음악을 함께 알릴 수 있는 유용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성천의 합주곡 <훈민정음>은 한글을 주제로 삼은 창작국악이라는 점에서 한국문화와 언어를 알리는 주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고, 한국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성악곡은 한국의 시와 전통음악에 기반한 창작국악을 함께 알릴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상과 같이 이성천의 생애, 음악철학, 주요 작품세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음악문화는 전통음악뿐 아니라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이 창작된 현대적 창작국악작품도 한국문화콘텐츠로서 확고한 역량을 다 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성천의 창작국악작품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한 교육적·연구적·창작적 활용과 한류의 다양한 음악 산업 장르로서의 역할,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닌 스토리텔링의 공연문화콘텐츠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기덕, “자료의 힘과 역사적 상상력: 역사학과 문화콘텐츠,”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6.

[2] 심승구, “한국 술문화의 원형과 콘텐츠화,” *인문콘텐츠학회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05.

[3] 허정아, *디지털시대의 문화콘텐츠 기획*,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4] 윤인향, *역사문화콘텐츠에서 문화정보학*, 학국과 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2009.

[5] 신혜승, “음악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음악문화콘텐츠 창작: 한국 근대가곡으로의 여행, 《봉선화》를 찾아서,” *음악논단*, 제33집, pp.133-158, 2015.

[6] 강선하,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7] 이성천, *한국 · 한국인 · 한국음악*, 풍남, 1997.

[8] 강규선, *훈민정음 연구*, 보고서, 2001.

[9] 이찬도, 이윤원, “한류콘텐츠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제고 방안: 음악산업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제13집, 제3호, pp.95-112, 2012.

[10] 신광철,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방향,” *인문콘텐츠*, 제9집, pp.351-370, 2007.

[11] 김은진, 임병노,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융복합 학문의 시대적 흐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3호, pp.102-113, 2012.

[12] 최영준,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음악콘텐츠시장의 변화와 그 발전,” *문화경제연구*, 제8집, 제2호, pp.57-73, 2005.

[13] 이상훈, 신광철, “제4차 산업시대 음악 콘텐츠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지*, pp.179-183, 2017.

저 자 소 개

강 선 하(Sun-Ha Gang)

정회원



- 2016년 2월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관심분야> : 문화예술콘텐츠, 교육콘텐츠